

국가도서관의 포지셔닝에 의한 하이브리드 자원 개발*

Hybrid Resources Development by Positioning of National Libraries

김지훈 (Ji-Hun Kim)**

【초록】

지식기반사회와 디지털환경의 도래로 도서관 특히 국가도서관이 변화하고 있으며, 도서관의 핵심인 장서개발에 대한 새로운 개념, 과정 및 도구가 변화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국가도서관에서 지속가능한 자원의 수집과 보존을 보장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자원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국가도서관과 장서개발의 변화를 살펴보고, 표준에서 제시된 성과지표, 정의, 목적 및 사명을 통한 국가도서관의 포지셔닝에 의거하여 국가장서의 범위를 고찰하였다. 또한 도서관 관련법을 통해 디지털자원의 납본방법을 제시하고, 국가도서관에서 하이브리드 장서개발체계와 함께 온라인 디지털 자원의 아카이빙 방법을 고찰하였다.

【키워드】

국가도서관, 국가장서, 장서개발, 하이브리드 자원개발, 디지털장서, 아카이빙

【ABSTRACT】

Due to the advent of knowledge-based society and digital environment, libraries especially national libraries are undergoing a transformation and the new concepts, processes and tools for collection development as the heart of libraries are evolvi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the direction of hybrid resources development for ensuring sustainable collection and preservation of resources in national libraries. Accordingly, this paper looks about a transformation of national libraries and collection development, and investigates the coverage of national collections based positioning of national libraries through performance indicators in standard, definitions,

purposes and missions. It also proposes legal deposit methods of digital resources through the law related library and investigates archiving method of online digital resources including hybrid collection development system in national libraries

【Keywords】

National Library, National Collection, Collection Development, Hybrid Resources Development, Digital Collection, Archiving

1. 서론

지식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요소로 인식되는 사회가치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도래된 디지털환경은 도서관의 중요성을 한층 더 높임과 동시에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다양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도서관이 지식기반사회의 핵심으로 인지되기 때문에 도서관의 중요성은 부언할 필요가 없겠지만, 디지털 환경은 전통적인 내용이나 방법과는 다른 차원으로 도서관이 어떠한 포지션을 가지고 어떠한 정보기술을 어떻게 활용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자원을 최적으로 서비스해야 하는가에 대한 많은 문제들을 제기하여 왔다.

디지털 환경이 가져다준 도서관의 변화의 결정체로 나타난 것은 디지털도서관이라 할 수 있다. 디지털 도서관은 장서의 디지털화를 전제조건으로 하여 전통적인 도서관의 역할과 범위를 확대하여 디지털 환경에서 작용하도록 인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태생적으로 디지털도서관을 표방하여 디지털 자원만 구축한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서관은 장서를 구축함에 있

* 이 논문은 2009년 한국비블리아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를 수정·보완한 것임.

** 계명문화대학 사회복지상담과 교수(jhkim@kmcu.ac.kr)

논문접수일자 : 2009년 5월 1일 논문심사일자 : 2009년 5월 15일 게재확정일자 : 2009년 6월 15일

어 기존의 아날로그 자원에 부가하여 디지털 자원을 동시에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공하는 정보도 아날로그 자원에 추가하여 온라인으로 소장 자료의 목록이나 초록정보서비스뿐만 아니라 소수의 원문정보와 외부의 디지털 자원으로 링크서비스를 하는 하이브리드 도서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도서관은 하이브리드 정보환경에서 전통적인 도서관의 기능과 디지털도서관의 기능을 결합하여 이용자에게 아날로그 자원의 위치를 알려주어 물리적 환경에서 아날로그 자원의 이용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디지털 자원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통합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이다(Pearce, Cathro and Boston 2000).

오늘날 대부분의 도서관은 이러한 개념에 기반을 두어 이용자의 다양하고 특성화된 정보자원에 대한 접근을 위해 OPAC을 통해 아날로그 자원으로 안내할 뿐만 아니라 해의 데이터베이스, 전자저널, 학위논문, CD-ROM 등 디지털 자원에 대한 접근, 주제 게이트웨이, SDI 서비스, 상호대차서비스 등 다양한 이용자 중심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출기록 확인, 도서관 안내정보, 의견이나 자료구입신청 등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도서관을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서관이 모든 장서를 디지털화하여 전통적인 도서관의 역할을 디지털 환경에서 구현되도록 하는 완전한 디지털도서관 형태를 유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물리적 공간속에서 전통적인 도서관의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면서 단일 인터페이스를 통해 아날로그 자원과 디지털 자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도서관 형태를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은 정보환경의 변화양상에 달려 있겠지만, 대체로 하이브리드 도서관은 디지털 도서관으로 전이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보는 편이 강하다. 따라서 전자가 미래의 이상적인 모습이라면 후자는 현재의 실제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현실과 이상 간에 나타나는 괴리의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도서관에서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장서개발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장서개발은 도서관 업무의 첫 단계로서 도서관이 소장하려는 정보자원에 대한 계획·선택·수집·정리·구축·평가·관리 및 보존 등의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대체로 전통적인 도서관에서의 장서는 주로 인쇄물로 대표되는 도서와 그 외의 비도서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주어진 예산과 의거하여 장서의 수준

과 범위를 정하였으나, 장서의 대상이 디지털 자원으로 변화 및 확대됨에 따라 장서개발에 새로운 개념과 방법이 요구되었으며, 장서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되었다.

즉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정보기술은 도서관이라는 실제공간을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으로 이동과 함께 대부분 아날로그 자원을 중심으로 유지해 온 장서에 디지털 자원이 부가되어 장서의 외연이 확대되고 그에 따른 개발방법도 확대되었으나, 한편으로 접근의 편의성이 부가되면서 장서의 범위를 소장에서 접근으로 이동함으로써 도서관의 존재가치와 정체성이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가상공간에 대한 환상은 TV의 보급으로 영화가 사양길로 접어들 것이라는 오판처럼 오히려 초고속 인터넷이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현실에서 도서관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어 도서관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위기감을 상쇄시키고 있으며, 종이 없는 도서관이 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디지털 자원의 증가와는 별도로 인쇄자료로 대표되는 아날로그 자원이 계속 늘어나는 하이브리드 정보환경이 지속되어 도서관의 장서는 아날로그 자원과 디지털 자원이 혼화(blending)된 하이브리드 자원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서개발은 도서관의 성격을 결정하는 필수적인 요소로서, 모든 유형의 도서관은 설립주체와 목적, 이용자의 범위, 서비스 목적과 내용 등에 따라 장서개발에 대한 정책과 업무를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의 문화유산을 수집하고 전승하는 책무를 지닌 국가도서관의 장서개발에 있어서 포지셔닝에 의거하여 장서의 범위와 개발방향을 조사하고, 또한 장서로서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디지털 자원에 대한 수집을 공고히 하기 위해 도서관 관련법을 통해 수집방법을 검토하며, 아울러 온라인 디지털 자원에 대한 수집에 대한 국가도서관의 접근방법을 고찰하고자 한다.

2. 국가도서관과 장서개발의 변화

2.1 국가도서관의 변화

국가도서관이 전통적으로 서비스해 온 대상은 학습자 또는 연구자이다. 이는 '이용대상자는 정보이용·조사·

연구 등을 목적으로 소장 도서관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16세 이상인 자로 한다'라는 국립중앙도서관의 규정처럼, 국가도서관의 입관범위에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이러한 엘리트주의적인 사고를 벗어나 이용자의 범위가 변화하고 있다. 즉 국가도서관의 엘리트주의적 서비스는 정당하지 않으며, 정보서비스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이용자의 확대는 국가도서관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있다. 그 예로 전통적으로 국가도서관의 공간은 장서를 저장하거나 독서실 형태를 취했으나, 이용자가 확대되면서 공적인 공간을 학습공간 외에 전시공간, 카페 등의 편의시설을 추가하고 있으며, 이는 나아가 새로운 이용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또한 이용자의 확대는 국가도서관이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의 확대와 함께 아날로그 장서에서 디지털 장서로의 이동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디지털 형태의 장서변화는 국가도서관의 이용에 있어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인터넷을 통해 가상참고서비스, 개별화된 인터페이스, 다운로드가 가능한 미디어를 제공하여 과거보다 더 많은 이용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한편 인터넷 이용도 진화하고 있는데, 최근의 온라인 이용자들의 웹이용 방식이 과거의 이용자와 달리 참여적이고 협동적이며 상호작용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최근 '도서관2.0'이라는 새로운 도서관 모델로 회자되고 있는데, 도서관2.0의 기본 의도는 이용자에게 적합한 도서관을 만들어 사람들을 도서관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것이다. 즉 도서관2.0은 이용자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원하는 내용과 방법에 대해 참여하는 것을 강조하며, 도서관 공간을 가상적이면서 물리적인 하이브리드 공간으로 구성할 뿐만 아니라 더욱 상호작용적이고 협력적이며, 물리적 및 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이용자를 참여시키기 위한 도서관 서비스 모델로서, 도서관이 새로운 이용자를 발굴하고 기존 이용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Casey and Savastinuk 2006).

국가도서관이 비록 참여와 협력의 관점으로 보아서 지통정이나 사서커뮤니티를 통해 이미 도서관2.0의 개념적 활동은 하고 있으나, 사실 도서관2.0에 대한 논의와 활동은 대부분 공공, 대학 및 전문도서관에서 주로 집중된 반면 국가도서관에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국가도서관의 업무가 최종이용자와의 일차적인 관계보다는 국가유산, 납본, 국가적 서비스에 중점을 둔 측면

면도 있고, 그 이용자 범위가 다른 유형의 도서관에 비해 명확하게 설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비록 대규모 정보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유동자원이 거의 없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확대와 관련하여 국가도서관은 도서관2.0의 패러다임을 수용하고 있는데, 최근 국가도서관은 Facebook이나 Second Life를 만들거나, 목록에 메타데이터 태그를 부여하는 방법을 취하는 등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Svensson 2007).

또한 디지털 형태의 출판환경의 변화에 따라 디지털 장서로의 이동과 확대는 국가도서관이 국가유산을 디지털화하는 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는 국가도서관이 무엇보다 가장 기여해야 할 부분으로서, 웹으로 이용 가능한 국가적인 레포지토리를 만드는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장서, 국가서지, 잡지색인, 다른 데이터베이스로의 접근을 위해 웹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국가도서관 OPAC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유산에 대한 디지털화를 통해 전문을 제공하는 것이 해당되며, 이미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의 국가도서관은 대규모로 이를 수행하고 있다.

2.2 장서개발의 변화와 디지털 자원

도서관은 장서의 대상이 되는 정보자원 그 자체를 생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를 선별적으로 수용할 수도 없다. 다만 도서관은 정보와 이용자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곳이다. 따라서 도서관이 장서와 이용자 사이에서 훌륭한 중개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자원과 이용자의 변화와 특성을 잘 파악하여 최선의 대응을 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도서관은 도서관만 아니라 신문, 지도, 팸플릿, 그림 등의 인쇄형자료 뿐만 아니라 시청각 자료 등의 아날로그 자원을 장서에 포함하여왔다. 그러나 정보자원의 변화는 장서개발에 변화를 가져왔다. 즉 전자잡지나 전문DB와 같은 컴퓨터 기반 정보자원이 장서에 포함되고 있다.

디지털 자원의 출현 이전의 장서개발과 관련한 주제는 대체로 장서정책, 자료선택, 장서관리, 예산과 재정, 이용자 요구 평가, 장서이용연구, 장서의 사정 및 평가, 자원공유 및 협력 등을 포함하는 장서기반 활동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장서개발연구를 그 범주 내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디지털 자원의 영향력이 커지게 된 199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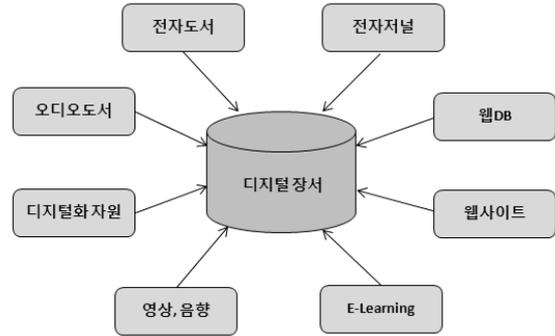
대 중반부터 장서개발현장에서 디지털 자원에 대한 논의가 지배적이었다. 즉 장서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모든 측면에서 디지털 자원의 영향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웹이 출현과 함께 장서개발은 장서를 도서관의 소유에서 이용을 위한 원격자원의 접근으로 이동하였다. 이때부터 도서관 장서에서 인쇄자료로 대표되는 아날로그 자원과 디지털 자원 간의 경쟁이 시작되었으며, 상대적인 가치 비교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새로운 출판형태로 나타난 디지털 자원은 과거와 달리 접근과 이용의 편의성으로 인해 환영을 받았다. 그리하여 온라인 환경에서 장서관리는 전통적인 인쇄 형태와 디지털 형태를 합성해야 되며, 오프라인 장서는 도서관 서가나 저장소에 물리적인 형태를 가지고, 이용률은 낮지만 유물적 가치를 가진 개체이거나 디지털화하기에 적절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배제된 것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되거나(Atkinson 1998), 도서관장서에 디지털 자원의 중요성이 인쇄물을 능가하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타났다(Younger 2002).

나아가 디지털 자원을 장서로 편입시키기 위해 장서관리에 있어서 디지털 자원의 가치와 필요성을 제시하고 웹기반 전자도서관을 위한 장서계획을 개발하고 실행하기 위한 지침이 제시되기도 하였다(Kovacs and Elkordy 2000). 이처럼 장서개발에서 중요한 축으로 대두된 디지털 자원에 대해 대부분 도서관에서는 소장뿐만 아니라 접근의 대상이 되면 장서로 받아들여 디지털 장서개발에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 자원에 대한 관심은 디지털 자원을 다양하게 구분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그리하여 디지털 자원을 생성형태에 따라 처음부터 디지털 형태로 나타난 '태생적 디지털 자원', 아날로그 형태(대체로 인쇄형태의 자료이나 일부 시청각 자료가 포함됨)의 자원을 디지털 형식으로 변환한 '후생적 디지털 자원', 그리고 이 두 가지 형태를 동시에 취하는 '복합적 디지털 자원'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또한 전달하는 매체에 따라 '오프라인 디지털 자원'과 '온라인 디지털 자원'으로도 구분하기도 하고, 다시 온라인 디지털 자원은 내용의 변화유무에 따라 '정적 디지털 자원'과 '동적 디지털 자원'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처럼 구분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겠지만, 디지털 자원은 내용이나 매체의 형태에 따라 일반적으로 전자잡지(e-journal), 전자도서(e-book), 오디오도서(audio book), 웹DB, 웹자원, 영상 및 음향, 이터닝 콘텐츠 등을 포함하며, 이들이 장서로 편입되면

<그림 1>과 같이 디지털장서로 규정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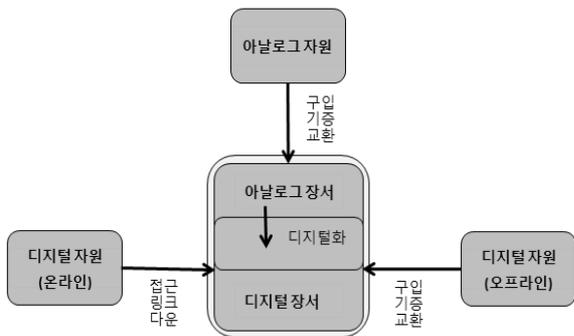
<그림 1> 디지털 장서의 구성

그러나 일부 디지털 자원은 라이선스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만 가능한 디지털 자원을 장서에 포함한다는 것은 실물소유로서의 장서에 대한 기존의 어의적 관념에 익숙한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 점에서 LC의 '전자자원 선정지침'에서 입수(acquire), 수집(collect) 및 연결(link)에 대한 각각의 정의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 지침에서는 입수는 디지털 자원에 대한 원격 또는 직접 접근을 일컫는 것으로, 공식적인 계약, 라이선스 또는 다른 동의(도서관이 소유 또는 소장을 하던 하지 않던 간에)를 통해 접근을 제공하거나 입수과정(구매, 증여, 교환, 저작권 납본 및 이전)을 통해 받은 것을 의미하고, 수집은 도서관이 소유하거나 영구적인 장서로 선정된 디지털 자원을 일컫는 것으로 도서관이 영구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어디든지 저장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연결은 도서관의 웹자원 또는 서지레코드에서 원격접근 데이터로의 포인터를 일컫는다고 제시하고 있다(The Library of Congress 2004).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장서의 범주에 포함시키되, 경우에 따라서는 구분하여 다루는 것도 고려해 볼직 하다.

여하튼 간에 '소장 불문 접근만 가능'한 디지털 자원에 대해 대다수 도서관이 디지털 장서에 포함하는 이유로 냉소적인 측면에서 디지털 자원 자체를 소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디지털도서관을 수용한 다음 별 다른 노력 없이 디지털 도서관의 면모를 그나마 보여준 공로에 보답하는 차원으로 볼 수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기존의 아날로그 자원보다 이용자의 접근성, 편의성 및 활용성을 제고시켰다는 점에서 접근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소장과 동일한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도서관의 입장에서는 소장 가능한 오프라인 디지털 자원(대체로 CD 또는 DVD 매체로 유통)에 대해서는 기존의 아날로그 자원의 장서개발정책과 유사하게 다루면 되겠지만, 접근만 가능한 온라인 디지털 자원에 대해서는 다른 차원에서의 대응논리가 필요하다. 사실 디지털 자원이 소장가능하건 아니면 접근만 가능하건 간에 라이선스 과정을 거친 디지털 자원은 이용자에게 접근의 용이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면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접근만 가능한 디지털 자원에 대해서는 과연 접근이 소장에 상응할 만큼 장서개발에서 가치가 있는지, 도서관 장서에 일시적인 접근만 있고 다음 세대를 위한 영구적인 소장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디지털 자원을 구성하거나 담고 있는 디지털 형식이나 매체의 수명주기를 고려한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대응은 어떠한지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 왔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은 기존의 아날로그 장서개발에 부가하여 인쇄잡지의 구독취소와 전자잡지의 계약의 확대, 웹DB 및 웹자원의 장서화, 아날로그 장서의 디지털화 등으로 디지털 장서개발을 확장하여 <그림 2>와 같은 하이브리드 장서개발구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 도서관의 하이브리드 장서개발 구조

이처럼 도서관의 장서개발은 아날로그 장서에 부가하여 디지털 자원으로의 접근, 링크, 다운로드를 포함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용의 편의성과 보존을 위해 아날로그 장서의 디지털화까지 확대한 하이브리드 장서개발로 전환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장서개발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오프라인 디지털 자원

현재 대부분 도서관에서 기존의 아날로그 자원과 유

사한 방식으로 장서개발을 하고 있으며, 대체로 이동 가능한 디지털 매체에 수록된 오프라인 디지털자원(대체로 CD, DVD 등의 디스크형태로 나타남)은 실물을 소장하고 있다.

② 온라인 디지털 자원

라이선스를 통해 접근만 가능한 온라인 디지털자원(전자잡지, 웹DB 등)은 개별적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라이선스를 확보하고 접근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라이선스를 요구하지 않는 웹자원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도서관 서버에 다운로드하여 아카이빙하고, 저작권에 해당되는 것은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사실 웹자원은 접근만 가능한 온라인 디지털자원만큼 논란이 있는데, 광대하고 유동적인 웹자원의 평가, 선택 및 보존의 문제, 상업적인 포털사이트와 차별성 및 활용성의 평가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디지털 자원은 디지털 장서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여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③ 아날로그 장서의 디지털화

이것은 현재 소장하고 있는 아날로그 장서를 디지털 장서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진정한 디지털 도서관을 구축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아날로그 장서를 디지털화하는 것은 유산적 가치가 있거나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아날로그 장서를 대상으로 하며, 현재의 이용성보다는 미래의 잠재적 이용을 위한 보존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디지털화에 대해서는 국가도서관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3. 국가도서관의 포지셔닝에 의한 하이브리드 자원개발 방향

3.1 국가도서관의 포지셔닝에 의거한 장서의 범위

포지셔닝(positioning)이란 개념은 원래 광고에 뿌리를 둔 것으로, 소비자의 마음속에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떤 핵심적인 이미지로 자리 잡고 있는냐에 관한 것이다. 즉 제품이나 서비스의 포지셔닝은 마케팅 측면에서 대상소비자를 설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경쟁대상과의 차별성을 부각하는 이미지로서 작용한다. 이에 준하여 도서관의 포지셔닝은 이용자의 이미지나 기대심리로서 다른 도서관들과의 차별성을 가지는 이용자, 장서 및 서비스에 대한 특성들이 포지셔닝 지표로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도서관의 포지셔닝 지표를 구체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유형의 도서관의 품질과 서비스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있는 ISO 11620 "Library Performance Indicators"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표준을 국가도서관에 그대로 적용하여 성과를 측정을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었다(Poll and Jönsson-Adrial 2006).

- 국가도서관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예: 대학도서관이면서 국가도서관, 의회도서관이면서 국가도서관)
- 국가도서관은 공공도서관 또는 대학도서관 같이 한정된 주요 이용자 그룹이 없어 이용자의 수를 비교할 수 없다
- 국가도서관은 나라마다 사명, 업무 및 기능이 다르므로 비용 데이터를 비교할 수 없다.
- 국가도서관의 주요 목표중 하나는 국가문화유산의 수집과 보존이므로, 관심을 두어야 할 지표중 하나는 국가문화유산의 범위이다. 그러나 한 나라의 출판물의 양, 특히 비상업적 부문의 출판물의 양을 평가하는 것은 항상 가능하지 않다.

이러한 국가도서관의 특수성으로 인해 ISO 11620에서 제시된 도서관 성과지표를 국가도서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제기되어 국가도서관의 성과지표를 위해 ISO 28118 "Performance Indicators for National Libraries"가 제시되었다(Poll 2008). 이 표준은 ISO 11620의 지표 중 일부를 약간 수정하여 반영한 것도 있지만, 국가출판물의 수집범위와 포괄성, 국가문화유산의 보존, 디지털화, 국가 및 국제적 관계 등에 대한 국가도서관의 특수한 조건을 반영하여 전체적으로 다음의 주요 서비스 영역에 따라 30개 지표를 설정하고 있다.

- 국가장서 구축
- 접근 가능한 서비스 제공: 편목, 빠르고 쉬운 접근,

사용법, 디지털화

- 참고서비스 제공
- 발전 잠재성
- 장서보존
- 효율적 경영

이 중 장서와 관련 있는 국가도서관의 성과지표는 국가장서구축, 장서의 디지털화 부분으로 <표 1>과 같다.

<표 1> ISO 28118에서 장서관련 성과지표

장서개발 관련영역	관련 성과지표
국가장서구축	• 국가도서관이 입수한 국가출판물의 비율 (국가장서의 완전성)
디지털화	• 장서 1,000개 당 디지털화된 문헌 수 • 특수한 장서 당 디지털화된 문헌 비율

국가도서관의 포지션은 국가도서관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로도 파악할 수 있다. 국가도서관은 나라마다 기원과 기능적인 면에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화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으나, 대체로 자국의 정부가 직접 설립·운영하는 국가의 대표도서관으로 공통분모를 설정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직접 설립·운영하더라도 국가의 대표도서관으로 어떻게 인정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UNESCO의 "국가도서관서비스의 입법지침"에서는 국가도서관의 개념을 <표 2>와 같이 구분하고 있다(Lor 1997).

이 개념구분에서 유산(heritage)은 장서의 구축과 보존에 강조를 둔 전통적인 국가도서관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부구조(infrastructure)는 자국의 여러 도서관에 대한 리더로서의 서비스 역할을 강조하는 현대적인 국가도서관의 모습을 보여주며, 포괄적 국가서비스(comprehensive national service)는 최종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강조하는 개발도상국의 국가도서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비록 이러한 구분이 발전단계, 주요 이용자 및 기능에 따라 국가도서관의 정체성을 형상화

<표 2> 국가도서관의 개념 구분

국가도서관 개념	발전단계	주요 이용자	전략적 강조	국가도서관 형태
유산	전통적(선진국)	학자 및 연구자	장서	전통적인 국가도서관
하부구조	현대적(선진국)	도서관	국가리더십	현대적인 국가도서관
포괄적 국가서비스	개발도상국	일반 국민	(최종이용자에게) 서비스 전달	국가도서관 서비스

시키고 있지만, UNESCO에서는 위의 각 개념을 포괄적으로 수용한 도서관을 국가도서관으로 구체화하여 다음과 같이 국가도서관을 정의하고 있다.

국가도서관은 직·간접적으로 국가의 재원으로 지원 받으며, 자국에서 만들어지거나 자국과 관련 있는 문헌 유산(주로 모든 형태의 출판된 자료)을 수집하고, 기록하고, 이용하는 책임을 가진 기관이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장서관리, 하부구조 제공, 자국의 도서관 및 정보체계에서의 조정활동, 국제적인 협력, 리더십의 수행을 통해 그 나라의 도서관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기능을 촉진하며, 이러한 책임은 대개 법으로 인정받고 있다(Lor 1997).

또한 도서관 통계를 위한 ISO 2789 “International Library Statistics”에서는 국가도서관을 다음과 정의하고 있다(ISO 2006).

국가도서관은 소재하고 있는 나라의 모든 적합한 문헌을 입수하고 보존하는데 책임이 있는 도서관으로 납본도서관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또한 국가도서관은 일반적으로 국가서지생산, 자국에 대한 문서를 포함한 외국문헌의 소장과 최신성 유지, 국가서지정보센터의 역할, 종합목록편찬, 다른 도서관행정의 관리 및 협력촉진, 연구개발 서비스의 조정 등의 기능 중 일부 또는 전체를 수행한다.

국가도서관의 정의에서 장서와 관련된 사항을 보면, 대체로 자국의 모든 형태의 출판된 자료의 수집과 자국 관련은 물론 그 외 가치 있는 외국문헌의 수집을 언급하고 있어, 자원의 망라적 수집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기관의 품질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 기관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아야 하듯이, 도서관의 포

지셔닝을 위해서는 도서관의 사명과 주요 업무를 명확히 함으로서 파악할 수 있다. 국가도서관의 사명과 목적에 대해 IFLA의 국가도서관 분과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장서
 - 1.1 법정납본을 통한 국가의 출판물(인쇄 및 전자자료 모두) 수집
 - 1.2 필사자료, 기록물, 지도, 그림, 사진, 전통적 혹은 디지털 형식의 시청각자료로 된 국가문화유산 수집
 - 1.3 자국어 및 자국에 대한 외국출판물 수집
 - 1.4 외국 출판물의 폭넓은 장서유지
 2. 접근
 - 2.1 국가서지레코드 생산
 - 2.2 연구, 학습 및 자기개발을 위한 장서에 최적의 가능한 접근 제공
 - 2.3 타당성 있는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장서에 원격 접근 제공
 - 2.4 이용자에게 직접적으로 그리고 다른 도서관이나 정보센터를 통해 주요 서비스(예: 참고, 서지, 대출) 제공
 3. 보존
 - 3.1 전자 장서를 포함한 국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성화
 4. 협력
 - 4.1 국가적 및 국제적으로 도서관정보업무 참여
 - 4.2 문헌정보연구에 참여
 5. 경영
 - 5.1 혁신적인 기술과 적절한 경영방법으로 효율성 보장
 - 5.2 직원 개발
- 추가적인 업무
1. 도서관교육센터 제공
 2. 국제적인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위한 국가포럼 수행 (Poll and Jönsson-Adrial 2006)

아울러 각 나라마다 국가도서관의 목적을 <표 3>과 같이 언급하고 있는데(Poll 2008), 대체적으로 모든 형

<표 3> 국가별 국가도서관 목적

국 가	국가도서관 목적
영국	국가의 구술유산의 관리자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연구자의 요구에 서비스하는 세계적인 문화 및 지적 자원이다
스웨덴	스웨덴의 모든 출판물을 수집하고 보존하며, 그 자료를 국민이 이용하도록 하는데 책임을 가진다.
남아공화국	국가의 핵심지식자원의 관리자 및 제공자이다.
노르웨이	노르웨이의 국가, 국민 및 문화에 대한 정보의 최고의 정보원이며, 노르웨이의 출판물의 수집, 아카이빙 및 배포를 위한 주요 자원이다.
일본	유일한 납본 도서관으로서, 일본에서 출판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국가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데이터베이스나 다른 형태로 그 출판물의 목록을 편찬하고 장서를 이용하여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한다.

태의 국가문헌유산에 대한 국가도서관의 책임을 강조하고 납본법에 의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위에 제시된 국가도서관의 정의와 사명 및 목적에서 볼 때, 국가도서관은 자국의 모든 형태의 출판물과 자국 관련뿐만 아니라 관련이 없더라도 가능한 폭넓게 외국 출판물을 수집하고 보존하는데 일차적인 책임을 두고 있다. 특히 자국출판물의 망라적이고 완벽한 수집을 위해 납본제도로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나아가 국가적 및 국제적인 도서관 활동과 서비스에 대한 리더 역할을 해야 하는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립중앙도서관, 입법부의 국회도서관, 사법부의 법원도서관을 국가도서관의 범주에 넣고 있으나(『2008 한국도서관연감』에서는 국가도서관으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구분하여 표기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국립디지털도서관과 함께 국립중앙도서관의 범주에 포함한다), 위에 제시된 정의와 사명 및 목적에 비추어 그 지위와 역할을 수행하는 우리나라의 국가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만 해당됨을 볼 수 있다. 이는 도서관법 제18조와 제19조의 내용과 조화됨을 볼 수 있는데, 제18조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지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제19조는 국가도서관으로서의 사명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와 관련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8조 (설치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소속하에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을 둔다.

제19조 (업무) ①국립중앙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종합계획에 따른 관련 시책의 시행
2. 국내외 도서관자료의 수집·제공·보존관리
3. 국가 서지 작성 및 표준화
4. 정보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
5. 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등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협력
6. 외국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
7. 도서관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조사·연구
8.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 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
9. 그 밖에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이상의 정의, 목적 및 사명 등을 토대로 국가도서관의 포지션은 '국가도서관은 법적지위에 기반을 두어 포괄적으로 정보자원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책임을 가지며, 국내 다른 도서관을 선도하는 각종 리더십 활동을 수행하며, 국가 및 국제적 대표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다른 도서관과 차별적인 국가도서관만의 특수한 포지셔닝 지표로는 법적지위, 납본, 포괄적 장서 구축 및 보존의 책무, 리더십과 조정, 국제적 협력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장서개발과 관련한 국가도서관의 포지셔닝 지표는 법적지위에 기반을 둔 납본, 포괄적 장서 구축 및 보존의 책무인데, 지식기반사회에서 주도적인 국가가 되기 위해서 국가도서관은 자국에서 생산되는 디지털 자원을 포함한 모든 정보자원이 도서관 장서로 편입되도록 납본제도를 보다 공고히 하고,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를 토대로 외국의 정보자원을 더욱 포괄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즉, 장서개발정책에 있어서 비용 대 효율 측면에서 선별적으로 정보자원을 수집하는 것이 최선이겠으나, 국가도서관은 특수한 포지션에 따라 정보자원을 포괄적이고 망라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납본대상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정보자원의 생산자와 협력적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생산자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방법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수집된 자원이 미래 세대에게 유용한 유산적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디지털 자원의 보존체계뿐만 아니라 아날로그 자원의 디지털화를 통해 자원의 총괄적인 아카이빙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3.2 도서관 관련법에 의거한 국가도서관의 장서개발

장서개발은 정보자원의 수집 및 평가, 정리, 구축, 유지보수 등의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는데 이 중에서 정보자원을 수집하는 부분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수집의 범위는 이용자의 요구와 재정적인 문제간의 최적의 절충점을 찾는 것이 문제이지만, 국가도서관은 기본적으로 포괄적인 수집을 전제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도서관 장서는 모든 아날로그 자원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원을 포함하는 하이브리드 자원을 대상으로 망라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국가도서관의 체계가 어떠한 형태를 취하든 간에, 앞의 국가도서관 포지셔닝에 따른다면 우리나라의 국가도

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법에 의해 한국의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다. 이에 의거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문헌을 수집하고 보존하여 현재 세대에 그 정보를 활용하게 함으로써 지식사회의 구축을 선도하고 나아가 그 유산을 미래 세대에 전달하여 문화를 창달해야 하는 국가도서관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는 모든 자원을 대상으로 망라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과 관련된 법은 주로 도서관법(법률 제9528호, 2009. 3. 2) 및 도서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이 해당된다. 이들 법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의 대상범위와 납본에 대한 부분이 장서개발과 관련이 있는데, 대체로 인쇄형태를 포함한 아날로그 자원에 대해서는 이미 명백하게 제시되어 있어 문제될게 없으나, 출판환경의 변화에 따른 디지털자원에 대해서는 비록 최근 개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재론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또한 저작권법(법률 제9529호, 2009. 4. 22)은 지적재산권의 제한으로서 도서관에서의 복제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으므로, 디지털장서로서의 보존 즉 아카이빙과 관계있다.

먼저 도서관법 제2조에서는 도서관의 장서로서의 '도서관자료'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25>

1.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평생교육 등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도서관자료는 도서관의 장서대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크게 아날로그 자원과 디지털 자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정이전의 법과 비교해 보면, 변화하는 출판환경을 고려하여 제2조2항에서 '온라인 자료

를 포함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정보자원의 범위를 온라인 디지털 자원까지 확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도서관자료의 납본에 대해서는 도서관법 제20조 제3장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개정 2009.3.25> ① 누구든지 도서관자료(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 부터 30일 이내에 그 도서관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수정증보판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 3.25>

이 처럼 도서관법 제2조에서 도서관자료에 대해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제20조에서 도서관 자료를 납본대상에 포함하면서 '온라인 자료를 제외한다'고 하여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사실 2009년 도서관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도서관자료의 납본에 온라인 디지털 자원을 포함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대립되는 이해관계와 납본에 수반되는 어려움 등으로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앞으로 온라인 디지털 자원이 확대되는 추세로 보아 국가도서관 장서의 대상으로서 국가유산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온라인 디지털 자원의 수집에 대한 납본제도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납본의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개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개정되기 전까지 온라인 디지털 자원을 납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다음의 도서관법 시행령 제13조를 근거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도서관자료를 확대해석하여 적용하고, 차후 현행 도서관법 개정 시 그 토대로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13조(자료의 납본) ①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할 자료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하거나 제작한 다음 각 호의 자료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개인이나 단체가 일반 공중이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발행하거나 제작한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다. <개정 2008.12.31>

1. 도서
2. 연속간행물
3. 악보, 지도 및 가제식(가제식) 자료

4. 마이크로형태의 자료 및 전자자료
5. 슬라이드, 음반, 카세트테이프, 비디오물 등 시청각자료
6.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중 콤팩트디스크, 디지털비디오디스크 등 유형물
7. 점자자료, 녹음자료 등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8. 출판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기록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

즉, 도서관법 시행령 제13조제8항에서 '출판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기록물'을 납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온라인 디지털 자원에 대해 납본을 적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출판환경의 변화에 따라 온라인 디지털 자원이 증가하며, 그 중 가치 있는 것이 장서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와 관련한 내용은 도서관법 제20조의2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 제20조의2(온라인 자료의 수집)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중에서 보존 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선정하여 수집·보존하여야 한다.
-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온라인 자료가 기술적 보호 조치 등에 의하여 수집이 제한되는 경우 해당 온라인 자료 제공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온라인 자료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도서관법 제20조의2는 출판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가도서관의 장서개발에서 온라인 자료의 수집의 당위성을

나타낸 것으로 장서로의 안정적인 편입을 위해 법적 해석을 전향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비록 현행법에서 납본의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유산을 보존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시적 접근보다 영구적 소장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다음의 저작권법의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대한 내용 중 제31조와 관련이 있는데, 국가도서관은 온라인 자료를 적극적으로 복제하여 보존체계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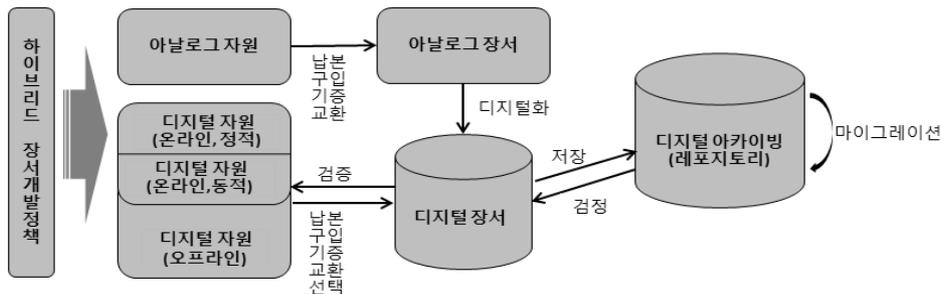
제31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 ⑧ 『도서관법』 제20조의2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복제할 수 있다. <신설 2009.3.25>

위의 내용을 토대로 우선 온라인 디지털 자료의 수집을 확대하여 보존을 위한 아카이빙에 힘쓰며, 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디지털 자원 중 전자저널, 전자도서 등 정적 온라인 디지털 자원을 납본에 포함시키고, 웹자원과 같은 동적 온라인 디지털 자원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3.3 국가도서관의 하이브리드 자원개발

국가도서관은 지식기반사회 구축의 선도적 역할과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유산을 전달하는 교두보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정보자원을 망라적으로 수집하여 보존하는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도서관은 <그림 3>과 같이 포괄적인 하이브리드 장서개발체계에 따라 장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3> 하이브리드 장서개발 체계

따라서 국가도서관은 기본적으로 아날로그 자원과 디지털 자원에 대한 총괄적인 장서개발정책을 수립하여 국내의 모든 정보자원에 대해 납본제도를 근거로 포괄적 수집을 하고, 현실적으로 모든 자원이 장서로 편입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구입, 기증, 교환을 통해 장서로 편입시켜야 한다. 그리고 수집된 디지털 자원중 동적인 것은 지속적인 검증을 유지하고, 국가유산보존을 위해 아날로그 장서를 디지털화해야 하며, 전체적으로 모든 정보자원이 아카이빙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통적으로 수행해 온 아날로그 자원이나 오프라인 디지털 자원에 대한 장서개발은 그다지 어려움은 없겠으나, 온라인 디지털 자원의 수집은 <표 4>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으나(Phillips 2004), 내용의 수준과 완전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측면에서 대체로 하이브리드 아카이빙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장서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다음의 온라인 디지털 자원에 대해서 국가도서관은 대표도서관의 입장에서 장서개발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① 전자잡지 및 웹DB

디지털 도서관의 구축에 있어서 일등공신은 전자잡지와 웹DB임은 분명하다. 사실 태생적 디지털 자원의 부족과 소장 장서의 디지털화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디지털도서관은 한계를 넘게 한 전자잡지와 웹DB는 이용자에게 접근성과 편의성으로 인해 환영을 받았을 뿐 아니라 디지털도서관의 허장성세를 간파하지 못하게

방패막이 역할을 하였다. 또한 도서관이 소장중심의 가치관을 접근의 패러다임으로 전환시켜 장서개발의 외연을 넓히기는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도서관이 장서라는 실물을 가지지도 못하게 되어 출판사(aggregator, DB제공업체 포함)에 종속되는 구조를 야기하였다.

그러나 국가도서관은 접근도 중요하지만 소장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국가도서관은 다른 도서관과는 성격을 달리하여 접근해야 한다. 디지털 자원제공 대상인 출판사가 어떠한 형태이든 간에 국내업체인 경우 납본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외국 업체인 경우 국내의 상업적 진출의 선행조건으로 우선협상자의 입장에서 협상을 하여 도서관에 대한 리더십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그 역할의 책임자로서 보존을 위한 아카이빙 협정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정보공동구매 컨소시엄의 주체가 되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ESLI)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ACE의 역할을 국가도서관이 주체가 되어 수행하거나, 국가도서관의 위상을 해당 기관에 부여하여 합리적인 협상과 국가도서관으로서 아카이빙을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② 웹자원

웹자원의 대표적인 유형은 무료로 제공되는 전자잡지, 회색문헌, 통계데이터, 정책과 기준, 법령과 제도, 전자계시판 등이다. 웹자원을 국가도서관의 디지털 장서의 대상으로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당장의 접근과 이용에 그 가치를 두기 보다는 국가의 문화유산으로서 보존에 가치를 두고 장기적인 이용에 초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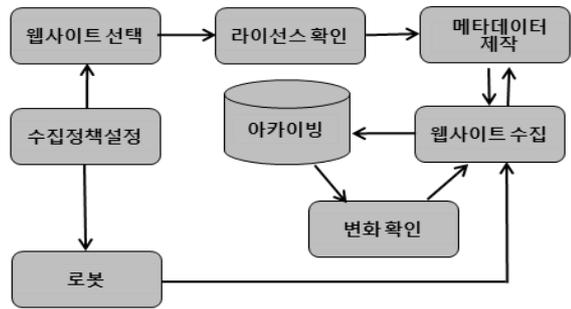
<표 4> 온라인 디지털 자원수집 방법

방 법	내 용
정적 웹자원의 선택적 아카이빙	- 덴마크, 캐나다 - 주제사서가 선택
정적 및 동적 웹자원의 선택적 아카이빙	- 호주 - 주제사서가 선택
포괄적 아카이빙	-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 비영리 기관인 Internet Archive - 최소한의 지적 작업(특정 도메인 지정)과 수집로봇을 이용하여 포괄적 수집
하이브리드 아카이빙	- 프랑스 - 가치 있는 자원에 대한 선택적 및 포괄적 수집
주제지향 아카이빙	- 미국 LC는 Internet Archive와 연합으로 선택적 수집을 하면서 동시에 특별한 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집
출판사와 협력적 아카이빙	- 네덜란드 - Elsevier Science and Kluwer Academic 등 일부 상업출판사와 협력하여 해당출판사의 전체 디지털 자원 수집 및 제한된 접근

웹자원을 수집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으나, 이제 웹자원은 가치 있는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도서관에서 장서의 대상으로 분명히 자리를 잡고 있다. 특히 웹자원은 휘발성 및 유동성이 강하고, 상업적인 검색엔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전체 웹자원의 일부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국가도서관은 품질 있는 웹자원을 발굴하고 아카이빙해야 할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는 국가도서관의 주도로 웹자원을 보존해 오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최근 국립디지털도서관을 설립하고, 웹자원 수집과 보존을 위한 OASIS를 수행하고 있다.

웹자원을 수집하는 방법은 웹자원의 특성에 다양하겠지만, 크게 선택적 아카이빙, 보편적 아카이빙 그리고 하이브리드 아카이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선택적 아카이빙 방법은 주제전문가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우수한 사이트를 발굴하고 로봇이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출판자와 협상을 하여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자원의 가치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이 작용하고, 웹자원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정하거나 중요한 부분을 누락할 수 있으며, 노동집약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보편적 아카이빙은 로봇을 사용하여 낮은 노동력과 비용으로 포괄적으로 수집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품질통제가 잘 안되고 로봇이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을 누락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하이브리드 아카이빙 방법은 선택적 및 보편적 아카이빙 방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요하고 권위 있는 주요기관의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선택적 방법을 적용하고 그 외에는 로봇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체크하여 수집하는 보편적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다(Phillips 2004).

어떤 방법을 적용하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웹자원의 수집은 개발정책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방대하고 수준차이가 극명한 웹자원의 특성과 자원의 망라적 수집과 유산으로서의 보존을 추구하는 국가도서관의 기능을 현실적으로 조화롭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이브리드 아카이빙 방법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웹자원의 선택기준을 마련하여 주제전문가를 중심으로 선택적 아카이빙을 수행함과 동시에 로봇을 통해 보편적 아카이빙을 정적자원에서 동적자원으로, 공공자원에서 민간자원으로 점진적으로 수집의 범위를 확대해야 하며, <그림 4>와 같은 체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4> 하이브리드 웹자원 개발체계

4. 결론

지식이 기반이 되는 사회가치는 도서관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새로운 기회를 가져왔지만,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환경은 도서관의 존재가치에 대한 위기로 다가왔다. 이러한 상반된 환경은 도서관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식기반사회의 중심이 되기 위해 도서관은 지식의 유통과 보존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인터넷으로 인한 위기는 도서관의 장서의 범위를 웹자원까지 확대하고 장서의 품질을 높게 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영향력을 가지는 중요한 요인은 장서와 깊은 관련이 있는데, 도서관은 그 유형에 따라 장서개발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가지겠지만, 법적지위에 기반을 두어 포괄적 정보자원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책무를 지니고 있는 국가도서관은 차별적인 장서개발을 수행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변화하는 국가도서관의 모습과 장서개발의 추이를 살펴보고, 국가도서관의 성과지표, 정의, 목적 및 사명 등을 통해 국가도서관의 포지셔닝을 검토하고, 포지셔닝 지표 중 법적지위에 기반을 둔 납본, 포괄적 장서 구축 및 보존의 책무 등이 장서개발과 관련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국가도서관의 장서의 범위를 고찰하였다. 그리하여 지식기반사회에서 주도적인 국가가 되기 위해 국가도서관은 설립목적과 사명에 따라 자국에서 생산되는 디지털 자원을 포함한 모든 정보자원이 도서관 장서로 편입되도록 납본제도를 보다 공고히 하고, 국가의 선도적 역할을 도서관으로서 외국의 정보자원을 더욱 포괄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도서관은 납본대상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정보자원의 생산자와 협력적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생산자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방법도 강구하여 자원을 수집해야 하며,

나아가 수집된 자원이 미래 세대에게 유용한 유산적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디지털 자원의 보존체계뿐만 아니라 아날로그 자원의 디지털화를 통해 총괄적인 아카이빙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가도서관의 포지셔닝에 따른다면 우리나라의 국가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이라 볼 수 있으며, 이는 도서관법에 의해 법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2009년 개정된 도서관법에서 온라인 디지털 자원을 납본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출판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법을 확대 적용하여 온라인 디지털 자원에 대한 납본을 공고히 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온라인 디지털자원에 대해서 국가도서관은 접근만이 아니라 소장도 중요하므로 디지털 자원제공 대상인 출판사가 어떠한 형태이든 간에 국내업체인 경우에는 납본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외국 업체인 경우 국내의 상업적 진출의 선행조건으로 우선협상자의 입장에서 협상을 하여 도서관에 대한 리더십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그 역할의 책임자로서 보존을 위한 아카이빙 협정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이는 국가도서관이 국가의 문화유산의 보존의 책무에 따른 온라인 디지털 자원의 보존의 당위성에 기반을 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도서관은 앞으로 장서로서 가치 있는 모든 자원에 대한 다양한 개발정책을 수립하고, 현세대가 정보자원을 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와 후세대를 위한 국가유산으로서 정보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아카이빙 체계를 더욱 자세히 수립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김지훈, 노진구. 2002. 하이브리드 도서관 설계를 위한 논리적 구조. 『정보관리학회지』, 19(2): 69-9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cited 2009. 4. 10]
 <<http://www.law.go.kr>>
 윤희운. 2007. 디지털 장서개발의 방법과 전략.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2): 79-99.
 이선희, 유수현. 2008. 국내외 사례비교를 통한 디지털장서 개발정책 동향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4): 125-147.
 한국도서관협회. 2008. 『한국도서관연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Atkinson, Ross. 1998. Managing Traditional Materials in an Online Environment: Some Definitions and Distinctions for a Future Collection Management.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42(1): 7-20.
 Casey, Michael E. and Laura C. Savastinuk. 2006. Library 2.0: Service for the Next-Generation Library. *Library Journal*, 131(14): 40-42. [cited 2009. 4. 20].
 <<http://libraryjournal.com/article/CA6365200.html>>
 ISO. 2006. *ISO 2789,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International Library Statistics*.
 ISO. 2008. *ISO FDIS 11620,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Library Performance Indicators*.
 Kovacs, Diane K. and Angela Elkordy. 2000. Collection Development in Cyberspace: Building an Electronic Library Collection. *Library Hi Tech*, 18(4): 335-359.
 Library of Congress. 2004. *Electronic Resources, Selection Guidelines*. [cited 2009. 4. 11].
 <<http://www.loc.gov/acq/devpol/electronicselectionguidelines.html>>
 Lor, P. J. 1997. *Guidelines for Legislation for National Library Services*. Paris: UNESCO. [cited 2009. 4. 15].
 <<http://unesdoc.unesco.org/images/0010/001095/109568Eo.pdf>>
 Pearce, Judith, Warwick Cathro and Tony Boston. 2000. The Challenge of Integrated Access: The Hybrid Library System of the Future. *VALA 2000: 10th VALA Biennial Conference and Exhibition, Melbourne, Victoria, 16-18 February, 2000*. [cited 2009. 4. 13].
 <<http://www.nla.gov.au/nla/staffpaper/jpearce1.html>>
 Phillips, Linda L. and Sara R. Williams. 2004. Collection Development Embraces the Digital Age.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48(4): 273-299.
 Poll, Roswitha and Christina Jönsson-Adrial. 2006. *Performance Indicators for National Libraries: A list of possible indicators, taken from the new*

- draft of the standard ISO 11620 and from practical examples tested by national or regional libraries*. [cited 2009. 4. 10].
<<http://www.ifla.org/VII/s1/pub/s1-PerformanceIndicators2006.pdf>>
- Poll, Roswitha. 2008. The Cat's Pyjamas? Performance Indicators for National Libraries. *Performance Measurement and Metrics*, 9(2): 110-117.
- Svensson, Lars G. 2007. National Web Library 2.0: Are National Libraries Ready for the New version?. *Information Services and Use*, 27(3): 91-95.
- Younger, Jennifer A. 2002. From the Inside Out: An Organizational View of Electronic Resources and Collection Development. *Journal of Library Administration*, 36(3): 19-37.